

광주시, 저소득층 코로나19 생활비 ‘핀셋 지원’ 지급한다

3만 여 기초생활보장·법정 차상위 가구에 63억 지급

별도 신청없이 가구당 20만 원씩 계좌로 직접 입금

광주시가 생계급여 지원 가구를 제외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핀셋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지원금은 광주지역 코로나19 발생 1년을 앞두고 시민안전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광주시의 12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12차 대책이 발표된 2월 현재부터 지원금 지급 때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2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법정 차상위 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3만 여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광주형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등 생계비 지원가구는 제외된다. 가구당 20만원 씩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

급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 바로 계좌입금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비 지출 등 지원금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해 계좌입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시는 대상자 계좌를 파악해 지급적 설 연휴 전인 오는 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전에 지급이 어려운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설 이후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

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형 가계긴급생계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올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긴급복지 지원과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광주형 긴급복지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항 시 복지건강국장은 7일 “시민안전을 위해 물 썰 틈 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적



정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데도 록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와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불편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찾아가는 목욕 빨래방 서비스’ 개시

208개 마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제공



고흥군은 최근 도덕면 장전마을을 시작으로 2021년도 찾아가는 이동목욕·빨래방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년 이동목욕·빨래방 서비스는 관내 208개 마을 1,938명

빨래차량은 노인복지관에서 따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올해는 두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감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복자 여성자원봉사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언제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목욕봉사에 나서주시는 5개 봉사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40.6%로 고령층이 많고, 고령층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장흥 관산읍 지사협, 공부방 환경 개선 ‘천관공부방 3호’

지역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가정 내 학습 공간 마련

장흥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일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천관공부방 3호’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천관공부방 지원 사업’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배·장판 교체, 전기 공사(LED 조명 교체) 등 환경 개선과 학습용 가구(침대·책상 등)를 지원하여 공부방이 없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

는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넘프만이불이 기탁한 10,000만 원으로 2가구 5명의 아이들에게 공부방 개선 사업 ‘천관공부방 1~2호’를 추진한데 이어,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탁금 5백만 원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1가구를 선정하여 도배장판 교체, 학습용 가구 지원 등으로 대상 아동이 원하는 맞춤형 학습 공간을 조성해 주었다.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이들이 쾌적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여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나주 영산동, ‘영양듬뿍 밑반찬 지원’ 사업 호응

영산동 지사협 주관...영양 취약계층 40가구 대상

나주시 영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민주)에서 주관하는 밑반찬 지원 사업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

고 있다. 영산동 지사협은 지난월부터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중증질환,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

40가구에 5월말까지 주 2회(총 40회)씩 밑반찬을 직접 배달한다고 2일 밝혔다. 밑반찬 비용은 지역민의 성금이 모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비로 마련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